

2010. 11. 15 제251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11. 15 제251호

문화·디자인

1. 박물관과 주변 문화시설 정보를 지역별로 모아 제공 (런던)

산업·경제

2.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개소 지원 (뉴욕)
3. 패션산업 활성화정책 추진 (뉴욕)
4. '지역 기업 파트너십 사업' 추진 (영국 버밍엄市)

건강·복지

5.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운동과 예술 체험·강좌 수강료 지원 (런던)

도시환경

6. 매립지에 센트럴파크 3배 규모인 프레쉬 킬스 공원 조성 (뉴욕)
7. 대기오염 정보를 지도로 보여주는 온라인방송 실시 (런던)

도시교통

8. 녹색교통 프로그램 시행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9. 교통정체 구간에 공공차량 우선시스템 도입 (도쿄)
 10. 전기자동차를 활용해 카 셰어링 사업 실시 (도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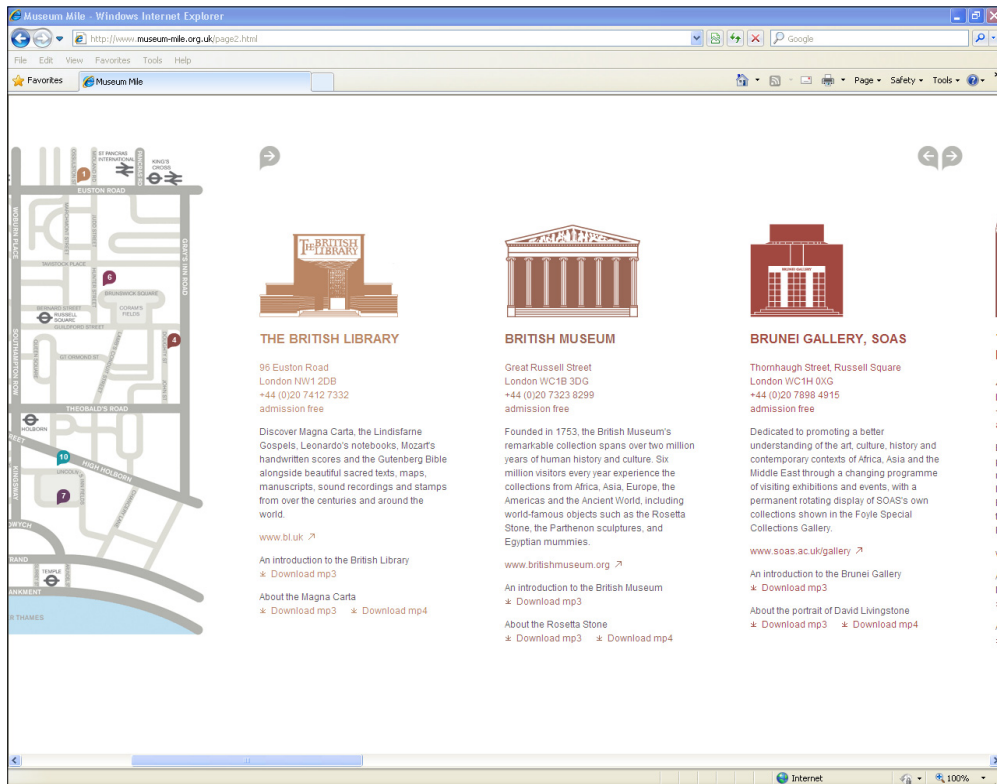
문 화 · 디 자 인

1. 박물관과 주변 문화시설 정보를 지역별로 모아 제공 (런던)

○ 뉴욕에서 시작된 ‘뮤지엄 마일’(Museum Mile) 사업이 런던에서도 시행됨. 뮤지엄 마일 사업은 관광객에게 각기 다른 전시공간을 연계하여 소개하고, 문화시설 관람을 유도해 도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여행하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임. 도심인 유스턴 로드에서 템스강에 이르는 구간에는 런던의 과거와 현재를 다각도로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13개소가 있음.

- 예를 들어 근대 런던 빈민가와 도시 성장을 실감나게 그린 찰스 디킨스 박물관에서 원고 초고를 본 뒤 부근에 있는 코톨드 미술관에서 인상파 화가의 작품을 감상함. 영국 국립도서관에 들러 셰익스피어의 2절판 책을 본 후 DNA 로봇이 전시된 웰컴 컬렉션에서 런던의 최첨단 기술 현황을 살펴봄. 이와 같이 정형화된 관광명소를 주제별로 나열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별로 모아 안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런던을 입체적으로 즐기도록 함.
- 市는 이 사업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함. 홈페이지에서 박물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음성 안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음.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박물관과 주변 지역을 여행하도록 박물관 전시물뿐 아니라 박물관과 관련된 유명인과 인근 유적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놓음.
 - 박물관 정보와 지도를 간단하게 소개한 팸플릿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이용자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음. 또한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박물관을 둘러보는 무료 도보 여행코스를 1일,

오전,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함. 도보여행은 여행사와 제휴해
진행하는데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과 예약이 가능함.



‘뮤지엄 마일’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박물관 정보

(www.museum-mile.org.uk)

(www.visitlondon.com/maps/guides/museum-mile)

산 업 · 경 제

2.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개소 지원 (뉴욕)

○ 뉴욕市는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개소를 지원함. 도시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인 ‘Sunshine Bronx Business Incubator’가 브롱스 역사지구인 Garrison Avenue에서 개소함. 이 시설은 40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에 업무용 공간과 사무실을 제공함. 또한 향후 3년간 창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약 1000m² 면적에 180개 사무공간이 있음.

- 市는 2008년 이후 브롱스에 생긴 신규 사업체가 1만 5000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혁신과 창업도시 조성을 목표로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개소를 지원함. 창업하는 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경우 사무공간과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중요함.

· 市는 주로 금융, 뉴미디어, 신기술, 녹색경영, 바이오의학, 의료서비스 분야 업체와 소규모 개인 사업체를 유치할 계획임. 이들은 월 약 30만 원의 임대료로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이용하고 네트워킹 이벤트, 창업지원 시스템과의 정보교류, 멘토링, 코칭, 사업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음.

- 市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2010년 말까지 인큐베이터 시설을 1개소 더 설치할 계획임. 설치비용 지원 외에도 마케팅, 자금 및 인사관리, 회계 분야에 대한 연구도 시행해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임.

(<http://sunshineny.com/bronx>)

3. 패션산업 활성화정책 추진 (뉴욕)

○ 뉴욕市는 도시경제 발전을 위해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6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패션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패션 뉴욕 2020’ 이니셔티브는 ① 신진 디자이너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② 유통, 다채널 소매 시스템, 경영 부문의 혁신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둬.

- 패션의 선두도시로 뉴욕을 꼽는 이유는 창의성과 전문성, 인력 측면에서 다른 도시를 앞서기 때문임. 이번 정책 역시 백화점과 주요 디자이너의 참여와 후원으로 수립됨. 市는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훌륭해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재무구조를 설계하고 리더십을 구축하도록 도울 예정임.

· 뉴욕의 패션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력의 5.5% 정도임. 이 분야에서 매년 약 2조 원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연간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쇼핑, 무역거래 등을 함.

- ‘패션뉴욕 2020’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NYC 패션펀드: 패션펀드를 조성해 신진 디자이너에게 기술, 재무 및 생산관리 등 경영 전반을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며 투자 유치도 지원함.

· 프로젝트 팝업: 소비자나 사업자가 원하는 장소에 터를 잡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홍보와 네트워킹, 마케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함.

· 패션 드래프트: 지역 학생과 유학생이 소비, 마케팅, 유통, 생산, 판매 등 직접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패션 캠퍼스 NYC: 학생이 전문가에게 패션산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함.
- 패션 전문가그룹 구축: 새롭게 떠오르는 디자이너 30명을 선발하여 디자이너로서뿐 아니라 경영자 자질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멘토링을 실시함.
- 기업가로서 디자이너: 새롭게 부상하는 창조적 계층인 디자이너가 패션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개별 디자이너가 기업가로 거듭나야 함. 이를 위해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

(www.nycfashioninfo.com)

2010년 주요 행정서비스 및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뉴욕)

- 뉴욕시는 2010년 주요 행정서비스 및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2011년 시정의 주요 방향을 정함. 시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교육과 경제 지표는 예년에 비해 조금 나빠졌다고 평가함.
- ① 범죄건수는 2001, 2005, 2009년과 비교해 각각 7만 건, 3만 건, 5000 건이 줄고, ② 공공시설 서비스 만족도는 2001년 대비 10%, 2009년 대비 0.3% 높아졌으며, ③ 영아 사망률과 에이즈 발병률은 줄고 의료보험 가입자와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은 늘어났으며, ④ 학교 안전도는 높아진 반면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낮아졌고, ⑤ 보조금 수급자와 청소년 홈리스는 줄어든 반면 어린이 학대건수와 전체 홈리스 숫자는 늘어났으며, ⑥ 실업률은 증가하고 빌딩 신축이나 리모델링 건수는 감소함.

(www.nyc.gov/html/ops/html/mmr/mmr_sub.shtml)

4. ‘지역 기업 파트너십 사업’ 추진 (영국 버밍엄市)

- 영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기술 향상을 위해 ‘지역 기업 파트너십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의 대상업체 모집에 응모한 56개 파트너십 중 버밍엄 지역(버밍엄市, 솔리힐, 탐워스 등)을 포함한 절반 정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음.
- 버밍엄 지역 기업 파트너십은 市와 지역 기업이 협력하여 150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이 사업은 영국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트너십 결성 이후 성과가 빨리 나오도록 기업 대출장벽을 낮추고 기업 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함. 주변 중소도시 등과 함께 산업 지원과 조달업무 협력을 위해 추진해온 ‘Think 지역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함. 이처럼 지역 주민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전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버밍엄 지역 기업 파트너십은 ① 2020년까지 민간부문 10만 개 일자리 창출, ② 기업 수익성 제고, ③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산업분야(자동차 조립, 금융서비스, 창조적 디지털 분야) 선도, ④ 숙련노동자 양성에 목표를 둠.

(<http://birminghamnewsroom.com/?p=13656>)

건 강 · 복 지

5.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운동과 예술 체험·강좌 수강료 지원 (런던)

- 런던市 캠던區는 만 13~16세 저소득층 청소년이 체력도 쌓고 문화 소양도 키우도록 유관 강좌 수강료와 문화 체험비용을 지원함. COO-L (Choice and Opportunities Online)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2009년 9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며, 청소년이 직접 ‘선택’해 ‘기회’를 잡는다는 의미가 있음.
 - 지원 대상 활동으로는 공연 관람, 연기 수업, 암벽 타기, 호신술 강좌 등으로 1개월에 15파운드(약 2만 7000원)가 지원됨. 액수는 크지 않지만 구영(區營) 체육관을 이용할 때 60세 이상 노인과 유아·청소년이 할인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와 체육활동을 체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지원금 신청 대상은 캠던 거주 해당 연령대 청소년 중 무상급식 대상자, 區 생활보호대상자,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임. 區는 2011년에 최대 12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 학부모,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임.
 -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전용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등록한 후에는 보호자 확인을 받아 區 내·외부 시설에서 희망하는 문화 및 체육활동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함. 예약할 때마다 區에서 지급한 지원금액이 차감됨. 區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예약 확정 사실을 알려주고, 활동 예정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를 재발송하여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함. 할당된 15파운드를 다 쓰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며 최대 80파운드(약 14만 3000원)까지 쓸 수 있음.

(www.camden.gov.uk/ccm/content/education/services-for-children-and-parents/coo-l-cash-for-activities.en;jsessionid=00F78E1E72B5B894B550855D9D51F93A)

근로자 정년을 5년 연장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10년 10월부터 근로자 정년을 5년 연장하기로 함. 이에 따라 근로자는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정년 연장을 신청하고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벌일 수 있고 해당 기업은 근로자 정년을 남성 65세, 여성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상하이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도시로 2015년 인구증가율이 0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이 시책은 근로자에게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좋은 인재를 계속 확보하도록 도와줌.

(http://news.cyol.com/content/2010-10/22/content_3881408.htm)

도 시 환 경

6. 매립지에 센트럴파크 3배 규모인 프레쉬 킬스 공원 조성 (뉴욕)

- 뉴욕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였던 프레쉬 킬스 부지에 센트럴파크 3배 규모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새롭게 조성될 공원 부지의 45%가 과거에 매립지였음. 현재 대상지의 대부분이 습지와 하천,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맨해튼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시는 사업 목표를 ① 세계적 수준의 대형 공원을 만들고, ②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관을 조성하며, ③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④ 커뮤니티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량을 줄이는 데 둬.
- 시는 자연하천인 리치몬드와 메인을 공원 중심에 두고 주변을 도로로 설계함. 공원은 지형적으로 수변공간(Creek Landing), 포인트(The Point), 동·서·남·북쪽 공원의 6개 구역으로 나뉨.
 - 총 8ha 규모인 수변공간은 음식점, 방문객센터, 카누·보트를 타거나 대형 이벤트 및 피크닉을 즐기는 공간으로 꾸밈.
 - 포인트는 예술,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벤트공간으로 조성함.
 - 북쪽 공원은 94ha 부지에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도록 계획함.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관찰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조깅이나 자전거,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꾸밈.
 - 남쪽 공원은 171ha 부지에 축구, 산악자전거, 피크닉,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함.

- 195ha 규모인 동쪽 공원은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 이용객이 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음. 주로 가족공원 역할을 하거나 습지 탐방 등 교육용으로 활용함.
- 서쪽 공원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9·11 테러를 주제로 한 조경계획을 수립함.

(www.nycgovparks.org/sub_your_park/fresh_kills_park/html/fresh_kills_park.html)

엑스포의 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상하이)

- 2010년 10월 31일 폐막된 상하이 엑스포가 큰 경제적 효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됨. 2010년 내구소비재 매출액이 목표치인 6000억 위안(약 100조 5900억원)을 넘어 6100억 위안(약 102조 2665억 원)을 기록해 2009년 대비 17~1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상하이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년도보다 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엑스포 관람객이 목표치인 6000만 명을 넘어 약 7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엑스포로 인한 직접적인 관광수입이 800억 위안(약 13조 4120억 원)에 달하고 63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됨.
- 주요 상권의 매출규모에서도 엑스포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27일간 열린 쇼핑축제 기간에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23.7% 증가하고 관광명소인 '위위엔'에서는 기념품 판매가 늘어나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50% 증가함.

(www.afinance.cn/new/gncj/201011/299312.html)

(www.licai18.com/article/ArticleDetail.jsp?docId=972253)

7. 대기오염 정보를 지도로 보여주는 온라인방송 실시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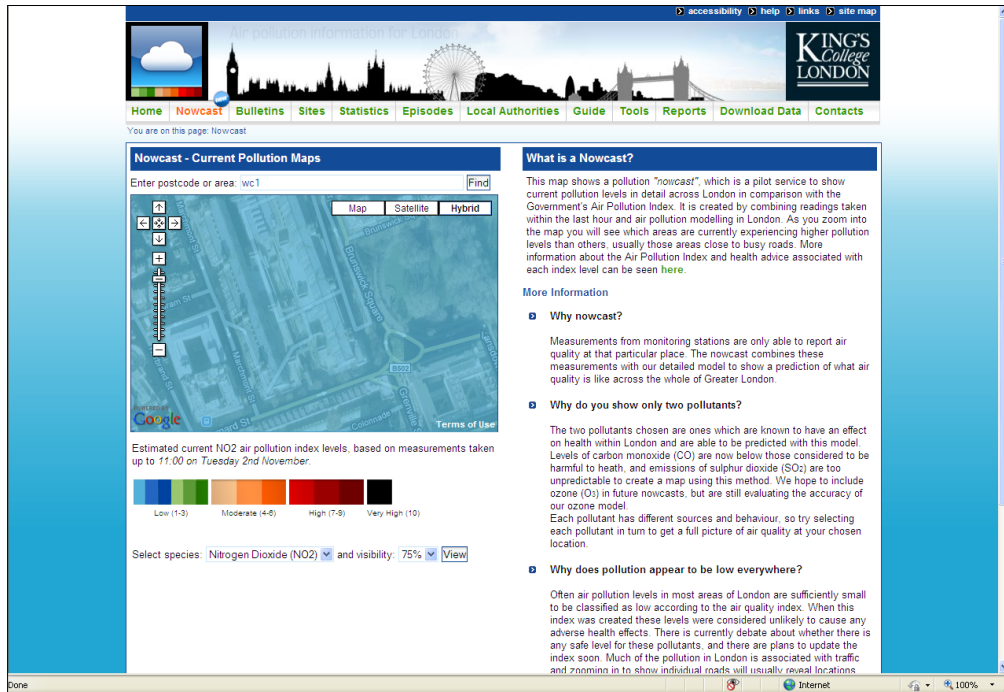
○ 런던시가 후원하고 런던 King's College가 운영하는 런던 대기상황실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정보를 지도로 보여주는 '대기오염 지도 방송'(Nowcast)을 실시함.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선정해 유관 정보를 지도로 보여주며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함.

- 지도와 대기오염 수치를 실시간, 시각적으로 제공해 그동안 오염현황 정보가 관측지점별로 분산되어 있어 도시 전체 오염현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극복함. 시민은 실시간 정보를 지역 단위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음. 이로써 대기오염 문제를 더 투명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 있는 100여 개 측정소에서 관측된 정보를 대기오염 지도에 표시하고 있으며 도심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룸. 이용방법도 간단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구글 지도를 활용해 검색할 수 있고 우편번호를 이용해 검색할 수도 있음.

- 영국 대기질 관리목표와 런던 오염수치를 관측소별로 비교분석한 통계자료, 지난 20년간 축적되어온 4억 개의 대기질 관측자료도 시민이 내려받을 수 있음. 실시간 오염지도에 대한 기술적 정확도와 공간 및 오염수치 오차 등 평가자료도 홈페이지에서 공개함.

- 대기상황실은 과학자, 대기질 전문가, 시민에게 대기오염 실태와 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됨. 기존 2개 오염물질 외에 오존을 추가하기 위해 오존 측정모형을 개발 중임. 지도의 정밀도와 측정수치 정확도도 계속 높일 계획임.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현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임.



런던 대기오염 지도 방송 화면

(www.londonair.org.uk/london/asp/nowcast.asp)

(www.londonair.org.uk/london/asp/news.asp?NewsId=NewLAQNwebsite)

도 시 교 통

8. 녹색교통 프로그램 시행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 샌프란시스코만(灣) 지역 도시교통위원회와 교통재정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3300만 달러(약 365억 원)의 기금을 녹색교통을 위한 실험적인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승인함. 녹색교통 프로그램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① 전기 택시, 이동식 자전거 수리점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방안, ②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풀 또는 카 셰어링 프로그램, ③ 폐자재를 활용한 도로포장 방안 등의 세부 프로젝트가 시범 실시될 예정임.

- 핵심사업인 전기 택시의 경우 샌프란시스코市와 산호세市에 배치되어 운행될 예정임. 아울러 이 지역에서 시행 중인 카 셰어링 프로그램 대상 차량에 전기자동차를 포함시킴. 이 프로그램은 시민이 연회비를 내면 차량을 이용하고 싶을 때 市 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렌터카처럼 시간이나 거리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임. 기금 일부는 9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용됨.
- 이동식 자전거 수리점이 확충되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알라메다 카운티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전거 수리, 안전 교육을 실시해 자전거 통학을 장려함. 산호세市는 자전거 이용자 수를 측정하는 각기 다른 시스템 8개를 시범 운영한 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시스템을 자전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 2곳에 설치할 예정임.

- 버클리市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비를 수요에 따라 내리거나 올리도록 하고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통근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임. 산 마테오 카운티는 레드우드市 도심까지 가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카풀이나 밴풀(Vanpools) 프로그램을 시행함. 마린 카운티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서는 카풀이 가능한 차량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할 계획임.
- 나파 카운티와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기존 도로포장재를 분쇄해 바로 그 자리에 재사용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할 예정임. 이렇게 하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운송·처리 비용도 줄임.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10/10/28/BA2B1G2VDE.DTL&feed=rss.bayarea)

9. 교통정체 구간에 공공차량 우선시스템 도입 (도쿄)

○ 교차로에서의 교통정체는 자동차 주행시간을 늘리고 대기오염을 유발함. 도쿄 경시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이 시스템은 크게 공공차량 우선시스템, 현장급행 지원시스템, 안전운전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됨.

- 공공차량 우선시스템은 광신호를 이용해 버스 차량정보를 식별하고 그 버스가 교차점을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임. 현장급행 지원시스템은 긴급차량을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 都 전역에 도입됨. 안전운전 지원시스템은 일반 차량이 교차점에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임. 현재는 특정 차종만 이용 가능하지만 일반 내비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전 차량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 경시청과 都 도시정비국은 최근 국토교통성, 버스사업자와 연계해 공공차량 우선시스템을 공항 직행버스에 적용하기로 함. 都는 이미 1998년부터 일부 급행버스 노선 약 37km 구간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을 거둠. 이번에 적용되는 구간은 하네다공항 주요 접근로인 신주쿠 지역, 임해부 도심지역 등임. 이밖에 미에縣에서는 이 시스템을 2003년 도입하였고 도요타市는 상습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10/20kar500.htm)

(www.kouaniinkai.metro.tokyo.jp/teirei/teirei_100917.html)

10. 전기자동차를 활용해 카 셰어링 사업 실시 (도쿄)

○ 도쿄도는 교통량, 교통정체 및 주차난, 배기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카 셰어링 사업을 시행 중임. 이 사업은 자동차를 다수의 이용자가 공동 이용하는 프로젝트임.

- 도는 카 셰어링 사업을 도영(都営) 주차장을 거점으로 2007년 처음 실시함.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활용하고 1대당 월 2만 1000엔(약 28만 원)의 주차비를 징수함. 이후 도는 오릭스 자동차(주)와 연계해 도영 지하철노선 10개 역을 중심으로 2009년 2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함. 지하철 승객이 역에서 직장이나 집까지 이동하는 데 차량을 활용하도록 함.

- 도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2010년 11월부터 4개월간 전기자동차를 활용해 카 셰어링 시범사업을 실시함. 낮 시간대에는 전기자동차를 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업무시간 외에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함. 이용 요금은 월 회비 500엔(약 6700원)에 15분당 150엔(약 2000원)이나 1km당 30엔(약 400원)의 요금이 부과됨. 급속 충전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음.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자동차 통행량 저감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과제를 도출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10/20kaq400.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07/02/22h2q100.htm)